

강윤경(MBC 아트디렉터)

방송무대는 아쉬움과 새로운 도전이 공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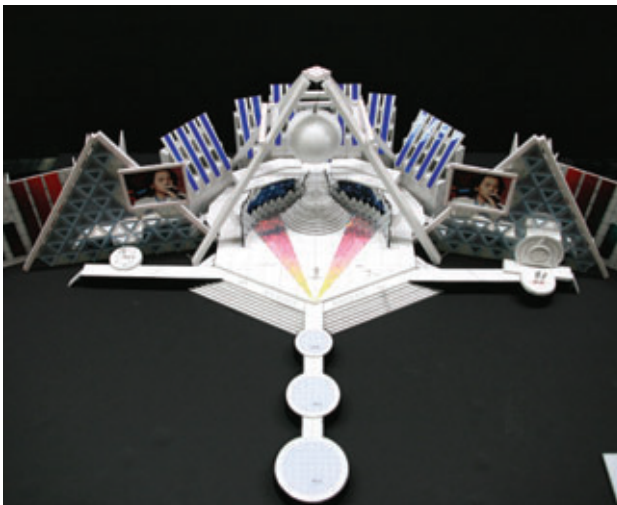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어린 시절 동네 놀이터에서 흉장난으로 모래집을 지었다 허물고, 지었다 허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이 놀이처럼 짓고 허무는 것은 반복이 되는데 그 마음 씹어주는 쉽지가 않다. 방송이 끝나고 무대가 허물어져 가는 모습에 “내 자식 시집가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옛 시절의 모래장난처럼 짓고 허무는 일이 일상에서 행복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아트디렉터의 시작

학부 때 실내디자인을 전공하고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는데, 친구가 방송사 입사시험 준비하면서 저한테도 함께 해보자고 권하더라고요. 때마침 'MBC 미술센터'에서 채용공고가 났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 시험에 응시하게 됐어요. 그런데, 운이 따랐는지 저는 합격하고, 친구는 낙방하는 어디서 들어본 듯 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 후, 친구도 다른 방송사에 입사를 했어요. MBC 미술센터로 입사하면서 방송사와의 인연이 시작됐죠. 당시에는 미술센터에 파견근무 제도가 있어서 'MBC 본사'에 파견되어 근무를 했어요. 그렇게 6년간의 시간이 흐르고, 본사에서 경력직 채용공고가 나고,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MBC에 몸담게 됐어요. 어느덧 5년이 더 지나 이쪽 개통에 몸담은 지 11년이 되었네요.



MBC에서의 아트디렉터 업무

방송사에서의 아트디렉터(미술감독)는 무대디자인에서 한 걸음 나아가면서 무대디자인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아트디렉터 하위에 무대디자인, 컴퓨터그래픽, 세트, 소도구, 분장, 미용 등 모두가 포함되는데 이 전체를 감독하는 것이 아트디렉터죠. 무대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감독과 디자이너의 경계선이 확연히 구분되겠지만, 대부분 업무의 특성상 무대디자이너가 미술 감독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요.

MBC는 지상파 방송사 중에 유일하게 미술팀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MBC는 MBC 미술센터와 MBC 본사에 미술부가 따로 있어요. 본사 미술부에는 무대디자인과 컴퓨터그래픽만 있고, 미술센터에는 무대디자인을 비롯한 세트, 소도구, 분장, 미용 등 무대미술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사 미술부는 디자인을 해서 미술센터에 설명하여 세트를 제작하고 있어요.

진행했던 작업과 기억에 남는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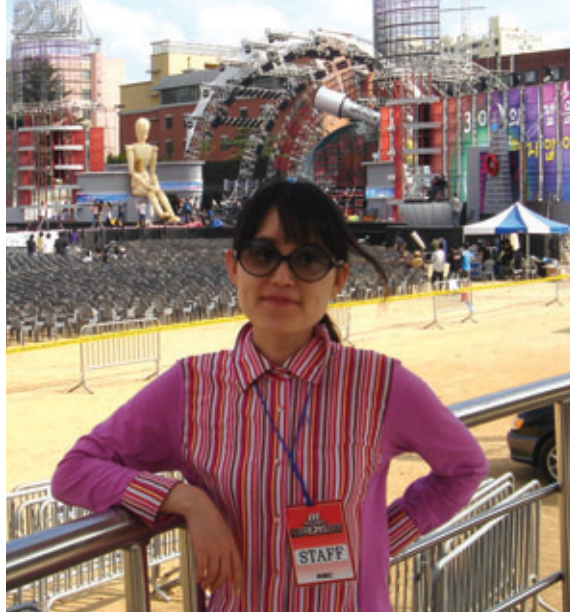
방송의 여러 장르(보도, 드라마, 예능 등) 중에 저는 예능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요. 미술부 업무 중 예능 분야로 설명을 들이면, 매주 제작되는 레귤러 프로그램(놀러와, 세바퀴, 일밤, 음악중심 등)을 하면서 야외에서 진행되는 대형 특집쇼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동안 진행했던 작업들을 살펴보면, 'MBC대학가요제', '대한민국영화대상', '가요대제전', '서태지 심포니 공연', '각종 시상식' 등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 중에서도 2006년도 가요대제전이 기억에 남아요. 무대 디자인적인 부분보다도 추위와 싸워야했던 많은 경험을 준 작업이었어요. 당시 상황이 파주의 '바람의 공원'에 야외 특설무대를 세워야 했는데, 차디찬 강한 바람에 아침에 내린 서리는 작업을 정말 힘들게 하더라고요. 세트장비 중 추위에 약한 장비가 있었는데 얼지 말라고 며칠씩 발전기를 돌려주던 일, 언 손 녹여가며 망치질하던 제작팀, 추위에 떨면서 공연하던 가수들까지 정말 고생하면서 진행했던 일이라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지금도 그때 일했던 팀들과 일하다가 힘들다는 말을 하면, 여기저기서 하는 말이 "2006년도 겨울도 버텼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얘기하면서 웃기도 해요.(^^)

아트디렉터의 매력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마지막에 화면을 타고 올라가는 크레딧에 선명하게 보이는 내 이름. 이름을 걸로 일한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게 방송인 것 같아요.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다시 신선하고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기다리고 있지만 이런 긴장감을 즐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디자인 한 무대는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 같고, 힘들게 오랜 시간 세운 무대가 하루 만에 철거될 때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 자식 시집가는 구나"라고 위로도 하죠.

방송무대는 아쉬움과 새로운 도전이 공존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새로운 디자인을 고심하여 무대가 올라가도 모든 부분이 방송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형 특집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부분이 방송에 한 번도 노출이 안 되는데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많이 속상하면서도 연출과의 사전협의가 부족했나 하는 반성도 하게 돼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디자인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아쉬움을 남기면서도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며 희망을 보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파트와의 협업

무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조명이고, 조명과의 호흡이 정말 중요해요. 저희는 조명팀과의 협업이 잘 이뤄지고 있는 편이에요.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연령 때도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내부적으로 다양한 감각들을 익히기 위해 스스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 수시로 많은 대화를 통해 사전협의를 하다 보니 작업이 더욱 정교해지고, 현장에서의 실수와 수정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템 따라잡기

다양한 사물들과 현상들을 자주 접하고, 스스로의 감각을 쌓는 것이 중요해요. 평상시에는 무대디자인에 관련한 책들도 많이 구입해서 읽고요, 여행도 자주 다니고, 독특한 시도가 있는 공연도 관람하고, 주변의 다양한 현상들을 사진으로 담기도 해요. 가끔 방송국에 견학 오는 학생들이 아트디렉터가 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시험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물어보는데, 이런 사항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디자이너에게는 무한한 상상력과 표현력, 감각이 필요로 하지, 외우듯 익힌 기술은 최종에 가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인원을 선발하는 분들도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 참신한데...”, 이런 느낌으로 선발하지 “잘 그렸네”를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일방적인 공부나 예전 문제를 답습하기보다는 일상에서의 관찰을 통해 감각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업무적인 바람

외부와의 다양한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화나 연극, 대규모 공연 등 접해보지 못한 분야가 많은데, 이런 분야가 방송과 잘 만난다면 높은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해요. 외부와의 새로운 시도는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방송사 직원들에게는 자극제가 될 것이고, 새로운 경험을 습득하는 계기를 마련해 서로가 더욱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해요. 외부와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서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추진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